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놓고 믿어라!

21면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90%가 부처라고 합니다. 왜 90%가 부처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벌써 부처라는 애깁니다. 그런데 자기 부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부처만 부처인 줄 알고 위대한 것만 위대하게 보고 낮은 건 낮은 거보고서 이상을 높이고 권세를 부리고 또는 버리고 알게 보고 이러는 까닭에 우리는 고가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그래서지요, 마음의 생동력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공해서 공심(空心)으로써 공생(共生)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조그만 일든지 큰 일든지 다 양하게 능력을 쓸 때에 항상 우주 천하 삼천대 천세계의 생명들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한 생각 낼 때에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수많은 능력이 한데 한마음에 응시 되니 한 생각에 우주 천하가 들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물건이 있고 여러분과 같이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불장군으로서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썼고, 내 것이 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 이 물건이 색(色)이, 내 몸 육신이 나라고 산다면 그렇게 나라고 했으니 수많은 생명의 능력은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주지 않습니다. 무량한 발전소, 즉 비유해서 자동적으로 돼 있는 자가발전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에게도 전기를 넣어 줄 수가 있죠. 항상 들어오는 불이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스위치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 쓰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무량한 자가발전소를 모르고 전기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기를 내가 자유롭게 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자가발전소가 바로 나라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널리 지혜 있게 써서 내 육신이 생기고부터 이 세상이 모두 공한 거를 알았고, 나로부터 전체가 공한 거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난 것이 바로 화두니까 그 화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진리가 있고 세상의 진리를 내가 탐구하고 깨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제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믿고 일임해 놓지 않는다면 천차만별로 된 부처님의 그 광대무변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모르면 부처님이 아마 알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부처님의 삼천 년 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이

라는 두 글자는 똑같겠소. 삼천 년 전 사람이거나 지금 사람이거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모습이 조금 다르게 돌아갈 뿐이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 사람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달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서 저이 미쳤다고, 만날 남이 못 알아듣는 말만 한다고 이럴까 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자꾸 접근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홀연히, 나중엔 나를 만나지 않을 때도 만나지 않는 대로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고,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면 항상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야, 이게 공했으니 내가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내 육신과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 내가 주인공이야. 즉 내가 주인공이지. 모두 내가 한 거 나한테다 놔줘.' 하고서 모든 걸 놓게 됩니다.

작년의 공씨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심어서 콩나무가 난 거죠. 그걸로 비유를 해 두고요. 그런데 콩나무가 났기 때문에 공씨가 또 열리죠? 그 공씨로 인해서 콩나무가 나고요. 연방 되풀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공씨는 여자가 된 거죠. 공씨가 있는데도 본래 공씨가 자기한테 있는 것도 모르고 콩나무가 자기라는 겁니다.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지 말고 콩나무가 있기 때문에 공씨가 있고 공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있는 거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마라.' 이러는데도 그 걸 믿지 못합니다.

또 인과응보라는 것은 바로 콩나무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입니다. 콩나무가 나라고 할 때는 바람에 맞고, 모든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 너무 꼬달리기 때문입니다. 꼬달리기 때문에 쫄쫄이가 되죠. 사는 데 그 건 부자가 못 되고 아주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

에 지니지 않으면 장 속에 넣어 놓고 이러니 부딪칠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한 차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소.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 마음으로 지어 놓은 것은 보이지 않게 받을 것이고 또 보이게 육신으로 저질렀다면 육신으로써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받는 것이 지어 놓은 거를 잘 파악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견성성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공해서 돌아가 되 자기가 지어 놓은 대로 강동이 되려면 강동이 되고, 자기 마음먹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고 행하는 데에 달렸으니 전생 후생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전생에서도 그러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에도 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태어나서 요렇게 차원대로 모였고, 내가 지어 놓은 것만치 가지고 밸런트처럼 팔자 운명이 거기 붙어 돌아가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성' 하는데 아니 글썽,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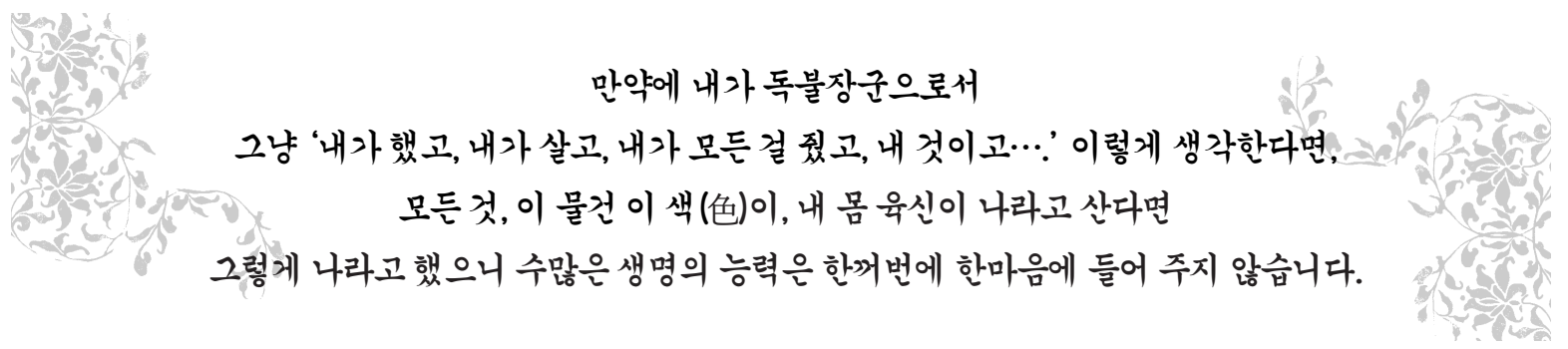
고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성도 옷을 입고 있어요.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별성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반사를 이루고 또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물에도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여 줄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비취 줄 수도 있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서로에 상응할 수 있고, 무수히 천차만별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서로 상응할 수 있고, 보이는 마음들하고도 같이 상응할 수 있고, 모습하고도 같이 모이면서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모이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세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하나가 만약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자기 깨달은 바 없다면 모든 것이 겉돌아 가고 항상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럴 겁니다.

저런 날아다니는 새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옥수수밭의 옥수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소. 우리는 인간으로서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몰라서 눈이 캄캄하고 귀가 먹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생이 뭘지 후생이 뭘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조차 몰라서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 제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면 다시 모습을 바꿀 때에 마음의 차원이 만약에 넘더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렇다면은 그 차원대로 나올 것이고, 또 사람 구실을 못했다면 요다음에 좌천해서 짐승의 모습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와서도 사람 행을 한다면, 정말 참마음으로써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는 아리따운 마음을 가졌다면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고 살듯이 우리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법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바로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무서운 것을 우리는 깜박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문은 1986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홀연히 단맛이든 쓴맛이든 다 합친 능력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그 생명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대로 못 알아 듣는 말 할 게 없이, 우리 지금 이 세상 여기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잘됐든지 못됐든지. 여러분이 좀 더 의정 나는 것을 물어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게 이해가 깊어질 때에 진실하게 놓을 수가 있다는 애깁니다.

질문자(2남) 저의 전생이 있다면 여기 모인 신도님들의 전생도 있을 것입니까. 저의 전생과 전전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이런 말이 있죠. '똥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봐도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을 텐데, 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전생이 있고, 전생이 없다면 지금 현생이 없겠소. 그런데 전생과 현생이 없다는 것은 전생이 바로 지금 현생과 더불어 한데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심이 현재심과 동시에 합쳐졌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를 아시면 전생은 반드시 있죠.

난하면 생활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고 모든 게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빠져 허덕이면서, 자기에게 본래 창살이 없건만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서 헤매고 돌죠. 그럴 때에 자기 마음으로 지어 놓은 업보가 바로 녀마의 차원이나 금의 차원이나 무쇠의 차원이나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인연 지어 놓은 것이 강동 인연을 지어 놔다면 강동끼리 모여서 부딪칠 거고 녀마 인연을 지어 놓았다면 녀마끼리 모일 거고, 만약에 금의 인연을 지어 놔다면 금끼리 모일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끼리 모이고 녀마끼리 모이고 강동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배운 것만치 자기 차원으로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행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이런 차원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식구로서 살면서도 그렇고, 강동은 강동끼리 모였기 때문에 소리가 분질하게 나오죠. 소릴 안 내려고 가만히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금이라는 거는 조그마하면서도 항상 속에다 지니기 때문에 말도 없고 부딪칠 필요도 없고, 항상 몸

께서 목병을 앓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래 손주대에 손주가 목병을 앓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차원이 강동이라든가 강동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모인 인연들이 전부 강동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 만나서 보는 사람도 고(高)고 당하는 사람도 고(高)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팔자 운명도 없을 것이고 유전성도 없을 게 아닙니까. 그건 왜? 자 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은 팔만대장경, 법구경이 다 어디 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삼각형 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양하게 색색 가지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법구경 아닙니까? 그 법구경을 누가 이루고 다니나요? 자기가 바로 마음을 내서 이 생명과 육신이 움직여지고 돌아가니까 삼각형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주의 섭리도 다른 혹성도 온하게 모든 게 삼각형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셋별이며, 셋별을 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 ~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야 쾌면,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목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 침대에 쓰러지면 뒤에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빠곤,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빠곤 바른 베개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대(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골짜(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